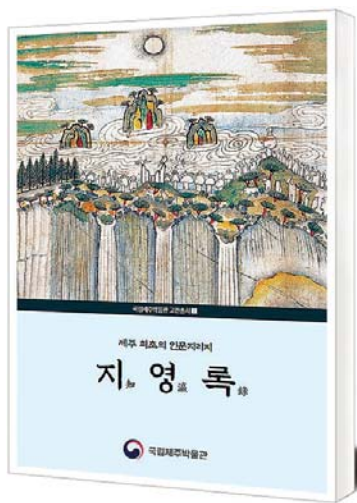




한라산 두 번 오른 열정... 300여 년 전 제주 생생

국립제주박물관 첫 고전총서
보물 이익태의 '지영록' 번역
'제주 최초 인문지리지' 평가
하멜 표류기 등 14편 표류기
4만 2000자 한자 원문 실어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익태(1633~1704)가 재임 기간 중의 업무와 행정, 제주 관련 역사를 기록한 '지영록(知寧錄)'. 제주도의 문화와 지명 등의 연원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외국인의 표류 상황에 관한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표류민 정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책으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8년 '이익태 지영록'이란 명칭으로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됐다.

2002년 이익태의 후손으로부터

'지영록'을 기증받아 현재 상설전시실에 공개하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이 첫 번째 고전총서 시리즈로 578쪽 분량의 '제주 최초의 인문지리지-지영록'을 펴냈다. '지영록'은 앞서 1997년 제주 한학자인 김익수 선생의 번역으로 제주문화원에서 처음 번역본이 출간됐고 2010년과 2019년 증보판이 나왔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이

번에 일반인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되도록 쉬운 문장으로 풀었고 제주 심경 화첩, 탐라순력도 도판과 현재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더했다. '제주목사 이익태의 생애와 업적' 등을 다룬 논고, 약 4만 2000자의 한자를 일일이 입력해 디지털화한 원문, '지영록' 원본 사진도 덧붙였다.

감수와 번역은 서광덕 부경대 HK교수와 김경아, 전영숙, 안재연, 고인덕 등 5인이 맡았다. 이들은 번역 과정에서 필사본 '지영록'의 앞쪽에 삽입된 글들이 전반적으로 습작 내지 다른 사람의 글을 일부 베낀 것으로 추정되며 저자가 이익태인 것이 확실한 '지영록서'부터 우리말로 옮겼다.

'지영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1694년 5월 2일에서 1695년 11월 13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의 일기로 이익태가 제주

목사로 제주받은 후 한양에서 육로와 해로를 따라 제주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등을 담았다. 후반부에는 이익태가 부임하기 이전인 1652년부터 1693년까지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정리된 14편의 표류기가 실렸다. 특히 '하멜 표류기'로 잘 알려진 '서양 사람 표류기'와 '김대환 표해일록' 두 편은 조선과 외국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표류민이 발생했을 때 조사 과정이나 표류민에 대한 구휼과 배려, 송환까지 하나의 체계화된 국가 간의 공식적 처리 방식을 알려준다.

이재열 국립제주박물관장은 발간사에서 63세에 노령의 몸으로 한라산을 두 번이나 올랐던 이익태의 일화를 전하며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지영록은 300여 년 전의 제주도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적었다. 비매품. 전선회기자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
제주학연구센터 총서 발간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두 차례 열린 '제주학 인물사 강좌'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제주도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학 총서 55번째 도서로 펴낸 '제주학 인물사: 20세기 제주를 빛낸 여성들'이다.

이 책에는 암울했던 20세기 제주의 상황에서도 감동의 사연을 만들어냈던 최정숙, 고수선, 강평국,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그리고 무명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필진으로는 박재형 제주도 문인협회장, 문소연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콘텐츠연구실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김장후 전 제주 4·3평화재단 이사, 박찬식 제주와 미래연구원 제주역사연구소장이 참여했다. 비매품.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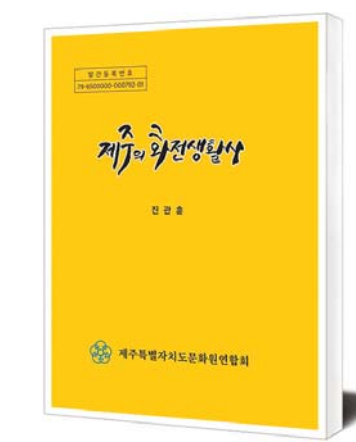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자연인 그대로의 삶 화전의 기억 찾기를”

진관훈의 '제주의 화전생활사'
도문화원연합회 기록화 발간

그는 제주 근대사의 모든 역사적 사건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키워드로 화전(火田)을 꼽았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초기 개척이 화전 농업에 중심을 이루어졌고 한라산 목장지대에 대한 농경지화 정책으로 경목교체 방식이 쓰였다. 화전을 국유지로 정하고 지방관아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거나 집중적 수탈이 행해지면서 '방성칠 난' 등 민란이 발생했다. 화전 마을 중에는 제주 4·3 이후 과거의 아픈 기억 등으로 지역민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잃어버린 마을이 생겨났다.

경제학 박사인 진관훈 제주테크노파크 수석연구원의 '제주의 화전



생활사'는 그 같은 화전마을과 화전민의 삶을 다루고 있다. 제주도 문화원연합회의 기록화 작업으로 한국의 화전과 화전농업,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변천, 제주의 화전과 화전마을로 나눠 제주의 화전 생활을 채록하고 정리했다.

진 박사는 지역에 따라 캐운밭, 남진밭, 천밭, 밭밭 등으로 불렸던 제주도 화전이 1930년대를 기점으로 축소된 점에 주목했다. 이 시기

한반도 내륙에서는 토지조사업으로 인한 농민층 분해, 유랑민 증가 등으로 화전민이 크게 늘었다. 반면 제주는 일본이라는 소비시장의 확대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농촌의 노동력이 해안마을로 집중되면서 화전이 눈에 띄게 소멸됐다. 또한 1920년대 이후 급격한 도일(渡日)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를 화전 지역 노동력으로 충당한 점도 화전민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오문복 선생의 글을 인용해 "우리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로 "화전이야말로 아무런 꺼릴 것도 구애받을 일도 없는 순박하고 무구한 착하다치한 자연인 그대로의 삶"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충청도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화전마을 복원 사업을 소개하며 제주에서도 역사적 기억 찾기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비매품. 전선회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가림호판

<286>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오맹이 꼴맨. "아고게, 가나귀털이 그디 ㅈ장 오랏구나양."
좁네 꼴맨저, "츨말 놀라운게양. 그초록 비 녀름 치디는 여즈 아오 따문
어땡ㅎ민 경 ㅎ여지느지. 그디에 무신 스연이 이진게 분명ㅎ게마쑴."
하트바지 꼴맨. "게무로사, 게나제나 날세도 ㄸ인디 잘도 오랏주게. 경ㅎ국
여즈 아오가 아판 서부난 도웨주쟁 혼 건 맞주게. 여즈 아은 ㅎ꺼
얼인 제주 가나귀털신디 손 ㅎ꺼글어주땡 고맙맨 인쑴 ㅎ꺼였주.
경ㅎ단보난 날이 더 어두워전게. 경ㅎ주만 그던 빛이 잘 비췌지난
뽕뽕ㅎ 기운이 이선, 췌인 웃도 츠츠 달란 판꺼ㅎ꺼였주.

* 제주어 풀이

*아고게 : <느낌> '아고'에 덧붙 '게'가 덧붙은 꼴로 '아고'에
힘줄을 나타낸 말

*그디 ㅈ장 오랏구나양 : 거기 까지 왔네요.

*어땡ㅎ민 경 ㅎ여지느지 :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려는지.

*게무로사(겔름로사) : <어찌>아무런들. 그렇다한들.
그렇더라도.('게무로'에 힘줄이 '사'가 덧붙은 말)

*도웨주쟁 혼 건 맞주게 : 도와주려는 건 맞아요.

*제주(겨우, 제위) : <어찌> 겨우. *제주 가나귀털신디 : 겨우 까마귀들에게.

*ㅎ꺼글어주땡 고맙맨 인쑴 ㅎ꺼였주 : 혼들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지.

*판꺼ㅎ다 : <그림> 텅텅 빈 상태가 되다. 거러갈 것 없이 깨끗하다.
일을 했음에도 연음이 전혀 없다. '변꺼ㅎ다'의 센 말.

고재만 화백

‘4·3과 여순사건 기억과 연대’ 학술대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순천대와 공동으로 개최

제주 4·3과 여순사건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과 순천대 인문학술원 공동 주최로 이달 21일 제주대 인문대학 2호관 현석에서 열리는 '제주 4·3과 여순 10·19 저항의 기억과 연대' 주제 학술대회다.

여순 10·19와 제주 4·3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이 제주 4·3을 진압하려는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

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론화·조직화에 대한 소고'(박종길), '4·3사건 진압 과정과 선무공작의 전개 양상'(임승자), '4·3 과거 청산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고성만), '국가폭력과 트라우마'(김석웅), '제주 4·3관련 구술조사의 현황과 과제'(엄현주), '고등학교 '국사'의 여순사건 서술의 변천 과정'(유상수)에 대한 발표가 잇따른다.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SNS와 줌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이튿날인 22일에는 현장 답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754-2310. 전선회기자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공기교반기(60W, 130W)



- 특허 제10-2078975호
- 바람판 도출구로 인해 공기흐름을 사각지대 최소화(특허)
- 송풍팬 시공
- 모터캡 사용으로 방습 방진으로부터 모터 2중 보호(특허)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송풍팬(60W, 130W)



- 파이프 체결을 고정구가 있어 안정적이고 깔끔한 송풍팬 시공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환풍기(330W, 800W)



- 특허 제10-2182942호
- 표면위로 도출되지 않는 기종으로 빠른 고온공기, 우해가스 배출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강화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하우스지킴이



- 고온, 저온 설정 범위조과시 휴대폰 알람 기능
- 최대 5인까지 휴대용 알람 등록 가능
- 특허 제10-2196685호
- 정전(결상시) 하우스개폐기 전원 자동변환 고온 피해 방지 기능

(하우스지킴이와 결상 전원변환장치 연동가능)

2022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품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